

# 連結語尾 研究

— 옛 詩歌를 中心으로 —

金 泰 琨\*

目 次

- I. 序 言      III. 結 論  
II. 本 論

## I. 序 言

地球上의 言語들은 몇 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韓國語는 添加語(膠着語, Agglutinative Language)에 속한다. 添加語는 소위 虛辭가 言語의 문법적 기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데, 國語에서는 助詞와 語尾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國語의 本質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하겠다.

國語에서 語尾는 매우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발달된 語尾도 처음부터 발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生成·變遷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中世國語의 語尾와 現代國語의 그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를 느끼게 한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國語의 連結語尾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15세기 語尾研究는, 李崇寧(1961)의 「中世國語 文法」, 許雄(1975)의 「우리옛말본」에서 개괄

\* 국어교육과 조교수

적으로 다루었다. 본고에서는 連結語尾 고찰을 古時調를 中心으로 다루고, 이 밖에 樂章, 高麗歌謠, 李朝歌辭 등을 대상으로 다룬다.

필자는 몇 년 전에 古時調에 쓰인 終結語尾를 고찰한 바 있는데(金泰現, 1984), 언젠가 連結語尾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본시 옛날 말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古文獻을 대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으로 古時調등 몇몇 詩歌體 文獻만을 대상으로 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詩調集은 歌曲源流(奎章閣本, 大提閣 影印)를 대본으로 하였다.

## Ⅱ. 本 論

連結語尾에 대한 분류를 보면, 崔鉉培(1956)는 現代國語 連結語尾를 (1)매는 꼴(拘束形), (2)놓는 꼴(放任形), (3)벌림 꼴(羅列形), (4)풀이 꼴(說明形), (5)견증 꼴(比較形), (6)가림 꼴(選擇形), (7)잇달음 꼴(連發形), (8)그침 꼴(中斷形), (9)더보탬 꼴(添加形), (10)더해감 꼴(益甚形), (11)뜻함 꼴(意圖形), (12)목적 꼴(目的形), (13)미침 꼴(到及形), (14)되풀이 꼴(反覆形) 등으로 나누었고, 中世國語를 보면, 許雄(1975)은 (1)계약법, (2)블구법, (3)나열법, (4)가림법, (5)의도법, (6)미침법, (7)전환법, (8)비교법, (9)동시법, (10)설명법, (11)비례법, (12)흡사법, (13)힘춤법, (14)가치법, (15)되풀이법, (16)연결법 등으로, 李崇寧(1981)은 (A)行動前提法, (B)前後羅列法, (C)同時並行法, (D)假定法, (E)因果展開法, (F)說明法, (G) '-(거/어)-'系 假想法, (H)條件提起法, (I) '-려-'系 假想法, (J) '-(고/오)-'系 意欲法, (K)其他 接續形 등으로 나누었다.

본고에서는 記述의 편의상 위와 같이 분류하지 않고 語尾形態를 中心으로 論旨를 전개해 간다.

### 1. -늘(-거늘, -어늘 / -아늘, -나늘)

이 語尾는 現代國語에서는 쓰이지 않고 성경책과 같은 예스러운 글에서나 볼 수 있다.

백성들이 다 오거늘, 앉으사 가르치시더니(聖經)

이 語尾 「-늘」은 語幹에 직접 붙어서 쓰이지 못하고 先語末語尾 「-거-, -아(-어)-, -나-」 등에 붙어 쓰인다. 그러면 옛 文獻에서 이 語尾가 어떠한 意味로 쓰였나 살펴보기로 한다. (시조 문장말의 괄호 안 숫자는 책 페이지를 가리킴)

- (가) ·草木昆虫들은 히히마다 回生커늘(8)
- 늑기도 설워라 커늘 덤을 쫓춘 지실가(18)
- 山川은 依舊커늘 人傑은 어되 간고(69)

위의 예들에서 「-거늘」은 說明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데, 각각 회생하는데, 서럽다 하는데, 위구한데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거늘」은 說明法으로도 쓰인다.

- (나) ·압 못세 든 고기들아 뉘라셔 너를 모라다가 넉커늘 든다(40)
- 柴扉에 귀 죽거늘 님 오시나 반겼더니(44)
- 말이 놀나거늘 革 잡고 굽어보니(79)
- 눈 情에 거룬 님이 슬커늘 어되 본다(33)
- 四海를 년글 주리여 구름 매 비 업거늘 얼우시고 또 노기시니(龍歌20장)

上例의 어미 「-거늘」은 現代語尾 「-기에, -으므로」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것으로 原因·理由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옛날에는 오늘날 많이 쓰는 「-기에, -으므로」 語尾를 쓰지 않고, 「-거늘」 「-리시」 語尾를 주로 사용하였다.

또, 「-아(어)늘」이 많이 쓰였는데 이는 指定詞 「이-」나 有聲音 다음에서 나타난다.

- (다) ㉠ 萬戶에 드리운 버들 뉘고리 世界여늘(26)
- ㉡ 乾坤이 눈이여늘 제 엇지 감히 뉘리(40)
- ㉢ 담 안에 뉘치여늘 못가에 버들이라 뉘썩리 노타하고 나뉘는 춤로다(89)

이와 같이 指定詞 「이-」와 「-어늘」이 접속될 때에는 hiatus 회피현상으로

半母音 [j]가 개입하여 [여]로 발음되므로 「-여늘」로 표기하였다. 上例에서 <다-㉠>은 「세게이고」, <다-㉡>은 「꽃이고」의 의미이다. 이것으로 보아 「-어늘」은 羅列形 「-고」의 의미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은 「눈인데」의 뜻이다.

「-나늘」이 쓰이기도 했는데 動詞 「오다」에서나 나타난다.

(라) · 씩업슨 손이 오나늘 갓 버슨 主人이 맛자(29)

## 2. -니(-거니, -나니, -더니)

語尾 「-니」는 現代와 마찬가지로 (ㄱ)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原因이 되는 事由를 나타내기도 하고 <松林에 눈이 오니, 柯枝마다 꽃이로다(5)>, (ㄴ)어떤 사실을 말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幽僻을 차자 가니 구름 속에 집이로다(21)>.

이 語尾 「-니」 앞에는 先語末語尾 「-거-, -느-, -더-」 등이 올 수 있는데, 먼저 「-거니」에 대해 살펴보자.

- (가) · 우리는 jem거니 돌인들 묵어우라(18)  
 · 오르디 못 하거니 느려가미 고이 하라(關東別曲)  
 · 기피를 모르거니 2인들 엇디 알리(關東別曲)
- (나) · jem거니 勸하거니 薑터로 먹은 後에(98)  
 ·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하샤(思美人曲)  
 · 잡거니 밀거니 늙픈 외히 올라가니(續美人曲)

위의 語尾 「-거니」는 松江歌辭에서 특히 많이 쓰였는데 그만큼 文學的인 표현에 적합하다. (가)의 예에서 語尾 「-거니」는 문장에서 한 번만 쓰였을 때, 뒤에 反意의 문장이 와서 設疑法으로 쓰여 강조를 나타낸다.

(나)에서 語尾 「-거니」는 여러 가지 동작이 잇달아 되풀이될 때에 쓰이는 羅列形語尾이다. 대체로 相對語를 羅列시켜 意味를 深長하게 하고, 「-거니」를 되풀이하여 韻律을 살려 주므로 詩歌에서 많이 쓰였다.

- (다) · 못느니 雲臺에 숨언 지 멘멘 히나 된인고(22)  
 · 비느니 經倫大志로 聖主를 도으샤 治國安民 호요소서(151)

- (라) ·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므리라(思美人曲)
- (마) · 왓는 님 보닉나니 잠든 나를 셔오렴운(71)

이 「-느니」는 現在形 持續相(李崇寧 1981 : 293)으로 주지하다시피 終結形 語尾로도 쓰였다. 上例에서 (다)의 語尾 「-느니」는 「묻노니, 비노니」의 뜻이며 현대어로는 「묻는데, 비는데」의 의미로 文頭에서 쓰이며, 이 말 뒤에는 內容說明이 뒤따른다.

(라)에서는 「짓는 것은」 「지는 것은」의 뜻을 나타내며, (마)에서 語尾 「-나니」는 現代語 「-느니」의 뜻으로 쓰여 比較의 의미가 들어 있다.

### 3. -든(-거든, -어든, -려든)

- (가) · 行하고 餘力이 잇거든 學文 좃츠하리라(11)
  - 셔거든 셔 술 셔 노릭로 니여 놀너 하노라(52)
  - 차내 집의 술 닉거든 부디 날을 부르시쇼(90)
- (나) · 併작을 쥬려 하거든 燃匠 쥬흔 날을 쥬쇼(38)
  - 울거든 너만 우지 날은 어이 울니느냐(90)
- (다) · 베던 길 압해 잇거든 아니 베고 어이하리(25)
  - 魯國 조븐 줄도 우리 논 모르거든 넘거나 넘은 天下 엇셔하야 적단 말고(關東別曲)
- (라) · 회여 검을디라도 회는 덧셔 설우려든(74)
- (마) · 날다려 즌셔이 일너든 너와 홀긔 놀니라(28)
  - 蜀國興亡이 어제오날 아니여든(5)

위에서 (가)의 語尾 「-거든」은 假定으로 條件 삼아 말할 때 쓰였고, (나)의 語尾 「-거든」은 「하면, 울면」 또는 「하려면, 울려면」으로 풀이할 수 있어, 假定과 함께 意圖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다)의 語尾 「-거든」은 「-는데」의 뜻으로 쓰여 상황설명으로 쓰였고, (라)의 語尾 「-려든」도 마찬가지이다. (마)의 예는 「이르면」, 「아닌데」의 의미이다.

上例의 문장을 보면 「-거든」의 後행절은 命令, 疑問, 話者의 約束, 意志 등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이상태 1977 : 30 참조).

### 4. -관디

이 語尾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그 까닭을 캐어 물을 때 쓰는 連結語尾이다. 「-기에」의 뜻으로 쓰였다.

- 네 덜이 언마나 호관더 遠鍾聲이 들어나니(6)
- 金鳥와 玉甯들아 누리 너를 쫓닐관더(9)

### 5. -르진디, -던딘

- 丈夫로 되어나서 立身揚名 못헐진디 차하로 다 바리고 酒色으로 늙으리라(80)
- 벗을 사관딘딘 有信케 사괴리라(蘆溪集, 五倫歌)

이 語尾들은 「-르것 같으면」의 뜻으로 假定法이며, 미래의 사실에 대한 조건이 된다. 그리하여 話者의 강한 意志가 나타난다.

### 6. -미

- 聖恩이 至重 호시미 감고 가려 호노라(11)
- 우리는 百歲 호이미 그을 슬허 호노라(32)
- 節節 도라오미 有信회 녀여더니(32)

現代國語에서 「-매」는 原因과 時間의 두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崔鉉培 1955: 299).

- 비가 오매 갈 수 없어서 망서렸다.(까닭)
- 나와 보매 그 사람이 있더라. (때)

그런데 古時調에서는 原因을 나타내는 「-므로, -기에」의 뜻으로만 쓰였지 時間을 나타내는 뜻으로는 쓰이지 않았다.

### 7. -르시

이 語尾를 崔鉉培(1955)는 說明形으로, 許雄(1975)은 제약법(구속형)으로 각각

분류했는데, 본고에서는 拘束形으로 본다. 「-므로, -기에」의 뜻으로 後行節에 대한 原因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語尾는 古時調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고 樂章이나 歌辭에서 많이 쓰였다.

- 노른셋 바오리실씩 몰 우회 니서티시나 二軍鞫手<sup>은</sup> 깃그니이다. (龍歌 44장)
- 君命엿 바오리어늘 몰 거턱 엿마<sup>ㄹ</sup>시니(龍歌 44장)

위에서 「-르씩」과 「-어늘」이 對를 이루어 같은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8. -면(-드면, -랑이면)

- (가) · 이제 님이 보면 날인 줄 아오실가(17)
  - 眞實로 알기곳 아오시면 곳 죽다 설우랴(17)
  - 平生에 憐된 일 아니항면 自然爲善항리라(23)
- (나) 이시라 항드면 가랴마는 제 곳 항여(9)
- (다) · 平生에 이 다섯가지를 두랑이면 부러울 거시 업세라(37)
  - 眞實로 주기곳 쥬랑이면 ㄱ레 들고 씨 지여 불가 항노라(38)
  - 아마도 글이던 님을 만나랑이면 ㄱ 良藥인가 항노라(121)

위에서 (가)의 語尾 「-면」은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假定을 뜻하는 語尾로, 「-르것 같으면」의 의미이다.

(나)의 語尾 「-드면」은 15世紀에 「-디면」으로 쓰였던 것인데 古時調에서 一例만이 나타난다. 「항드면」은 「했으면」의 뜻이므로 과거를 나타내고 있다.

(다)의 語尾 「-랑이면」은 現代國語 「-르랑이면」(제주도 구경을 다할 양이면 며칠이 걸리까?)으로 「-르것 같으면」의 뜻이다. 이 「-르것 같으면」은 「사실은 아닌데 같다고 할 경우에는」의 뜻이다. 이와 비슷한 의미의 語尾로 「-르작시면」이 있다.

- (라) · 고은님 울작시면 무르락나으락 캉캉 즈져 도라가게 항니(148)

이는 「울 것 같으면」의 뜻인데, 더 자세히는 「그러한 입장에 이르게 되면」의 뜻이다.

### 9. -어드란(-거드란)

- (가) ·어른님 오신날 밤이어드란 구뵤구뵤 췌리라(9)  
 ·이 後란 님이 오셔드란 잡고 날을 췌여라(71)
- (나) ·이 몸이 죽거드란 못지 말고(127)  
 ·더 여름 다 닉거드란 우리 님께 드리리라(154)

위의 語尾는 現代國語 「-거들랑, -걸랑」과 같은 것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상(假定)」하여 진술하는 語尾이다. 이 語尾는 15世紀國語에서는 쓰이지 않던 것이다.

### 10. -거니와, -려니와

- (가) ·唐虞도 도커니와 夏商周 | 더욱 뒸타(12)  
 ·人間五福中에 一曰 壽도 도커니와 하물며 富貴하고 康寧 좃츠 亨 오시니(70)
- (나) ·저 山 푸르기는 봄비에 잇거니와 엇디타 우리의 白髮은 검겨 불 줄 이시랴(47)  
 ·油然作雲 亨면 大旱에 도커니와 北風이 살아져 불 제면 벗뉘 물나 亨노라(93)
- (다) ·나뵤춤 아니런들 鶯歌 너뿐이여니와(53)
- (라) ·兒孺야 點心도 亨려니와 濁酒 먼저 걸너라(49)  
 ·田地와 奴婢는 갑슬 주면 살런이와 아모려 黃金인들 兄弟 살 디 잇느냐(蘆溪集, 五倫歌)

위에서 (가)와 (나)의 語尾는 같은 형태이지만 다른 機能을 한다. (가)의 語尾 「-거니와」는 이미 있는 事實을 인정하되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事實을 말하려 할 적에 쓰였고, (나)의 그것은 事理가 상반되는 구절을 잇는 說明語의 機能을 한다. 그리하여 (가)의 語尾 「-거니와」는 「-르뿐만 아니라」의 의미를 보이며, (나)의 그것은 「-은데」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다)의 語尾 「-어니와」는 指定詞 「이-」에서 쓰인 경우이고, (라)의 語尾 「-러니와」는 未來의 일이나 假定的인 일에 관하여 「그러하겠거니와」의 뜻을 담은 語尾인데, 上例에서는 「해야겠지만」 「사겠지만」의 뜻으로 後行節이 相反的인 일을 나타내고 있다.

### 11. -건마는(-런마는, -언마론)

「마는」은 助詞로서 終結語尾에 붙어 쓰이기도 하고(업스리요 마는, 가더라만는), 「-ㄴ」에 이어져 앞에 形態素와 함께 語尾로 쓰인다. 15世紀國語에서 「-건마론」 「-언마론」으로 쓰였던 것인데 詩歌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形態로 나타난다.

- (가) · 구름 썬 벗취도 썬 적이 업건마는 西山에 히 디다 하니 눈물 제워 하노라(6)
- 天生黑白이 네부터 잇건마는 엇디타 날 보신 님은 검다 회다 하는고(19)
- (나) · 활 소리 하건마론 武德을 아르시니 武德으로 百姓을 救하시니(龍歌 45장)
- (다) · 호떡도 놀히언마론 남기티 들리도 업스니이다(思母曲)
- (라) · 술딛은 제연마는 현우세 언마나 타리(46)
- 天地 삼기실 제 自然이 되연마는(關東別曲)
- 수플에 나는 부테 거출언마론 恭敬心으로 期約을 니즈니(月千77장)
- (마) · 蓬萊山 고은 님을 저러가도 보련마는 이 몸이 精衛鳥 갓트여 바잔 일만 하노라(93)

위의 예들을 보면 語尾 「-건마는」류는, 앞에서 이미 말한 事實과 일치되지 않는 일을 말하려 할 때에 쓰이는 語尾임을 알 수 있다. (마)의 語尾 「-런마는」은 「어간+리+언마는」으로 분석되는 것으로, 未來의 일이나 假定的인 사실을 말할 때 「-겠건마는」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라)의 語尾 「-언마는」은 [i]母音이나 [i]母音系, 또는 有聲子音인 [l] 다음에서 [ŋ]이 탈락되어 쓰인 것이다.

### 12. -ㄴ들(-런들)

- (가) · 千萬年 風雨를 만날들 기울 줄이이시랴(5)

- 님제서 보오신 後에 녹아진들 엇더리(5)
- 누운들 잠이 오며 기다린들 님이랴(7)
- (나) · 白髮이功名이런들 스람마다 닷돌지니(28)
- 버들꽃 안니런들 花紅 너췌이여니와(89)

(가)의 語尾 「-ㄴ들」은 양보하는 태도로 인정하면서 「-라고 할지라도 어찌」의 뜻이며, 뒤에는 反語의 의미를 가진 反問이 와서 設疑法을 이룬다. 이 語尾는 古時調에서 상투적으로 많이 쓰였다.

「-ㄴ들」에서 「ㄷ」가 依存名詞로 쓰이기도 했는데, 이때는 뒤에 오는 문장이 反語나 設疑法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는 古時調에서는 쓰이지 않았고 樂章에서 많이 쓰였다.

- 종과 물와물 현맨 돌 알리오 어느 누를 더 브르시려뇨(月千 52장)
- 千百億 變化 | 사 正道 | 노푼신 돌 아래브터 막숨애 아스보터(月千 109장)

위의 (나)에서 語尾 「-런들」은 받침 없는 體言에도 붙으며, (나)에서와 같이 指定詞 「이-」 「아니-」에 붙어 (가)의 語尾 「-ㄴ들」과는 달리 後行하는 反問表現과 반드시 관련있는 것이 아니고, 意味도 (나)에서와 같이 假定도 나타내고 있다.

### 13. -(으)나 (-거나)

現代國語에서 語尾 「-나」는 세 가지 意味機能으로 쓰이고 있다. 李熙昇의 「국어대사전」에 보면,

- ① 뒷 말의 뜻이 앞 말의 뜻과 서로 반대되어 따르지 아니함을 보일 때.
  - 밤은 기나 낮은 짧다.
- ②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가리어 말할 때.
  -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을 했오.
- ③ 형용을 과장하기 위하여 어간을 겹쳐 쓸 때.
  - 기나긴 여름 해도 어느덧 지고,

그러면, 詩歌에서는 어떻게 쓰였나 살펴보자.

- (가) · 이 보오 벗님네야 흔드지나 말넘우느(55)
- (나) · 흐리나 맑으나 중에 이 濁酒 도코(39)
  - 酒客이 淸濁을 갈회라 다나 쓰나 막우 걸너(98)
- (다) · 눔푸나눔픈 남계 날 勸하야 올너두고(55)
- (라) · 놀거든 취디 마나 셋거든 춧디 마나(關東別曲)
  - 굿마다 서린 괴운 몹거든 조치 마나 조커든 몹지 마나(關東別曲)

위를 보면 (가)는 부사형어미 「-지」에 「-나」가 이은 경우이고 (나)는 選擇形인데 詩歌에서 주로 相對語를 내세워 표현하고, (다)에서는 語尾 「-나」가 語彙가 반복되도록 연결시켜 주어 表現을 강하게 하는데, 現代國語에서는 語尾 「-디」를 더 많이 쓰고 있다 「놀디높은, 푸르디푸른, 춧디좁은……». (라)의 語尾 「-나」는 松江作品中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거나」의 뜻으로 選擇을 표현하고 있다.

- (마) · 빗지나 스지나 김흔 薰에 가득 부어(39)
  - 뒤지나 괴지나 중에 자고갈가 항노라(167)
  - 오지나 가지나 등의 훈잔 자바 항자(松江, 短歌)
- (바) · 넘지나넘은 天下 엇셔하야 적단말고(關東別曲)

위에서 (마)의 語尾 「-거나」는 選擇을 나타내되 相對語를 연결시키고 있고, (바)의 「-거나」는 古時調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용법으로 強勢의 意味機能으로 松江文學의 특징이다.

#### 14. -ㄹ(을)만정

15世紀에는 「-란디만정」으로 「앞 긍정(강조), 뒤 부정」의 뜻으로 하고 있으나(許雄 1975 : 579), 古時調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표기되었다. 이 語尾는 語幹이나 받침 없는 體言에 붙어 「비록 그러하지만 그러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즉, 어렵고, 사소하고, 안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좋다는 意味

를 나타낼 때 이 語尾를 쓴다.

- (가) ·草木을 무릅고 木實을 먹을만정 人心이 淳厚하던 줄은 못너 불허 하노라(27)
  - 술아져 죽을만정 못 니즐가 하노라(106)
- (나) ·아회야 저리 沈菜만정 업다 말고 너여라(40)
  - 꿈 속이 허서(虛事)라 만정 자로 뵈게 하여라(71)

### 15. -ㄹ선정(언정)

現代國語 「-ㄹ지언정」에 해당되는 語尾로서 오히려 그러하다고 是認하는 뜻이나 옳다고 택하겠음을 나타내는 語尾이다. 李崇寧(1981: 323)은 이 語尾를 「-ㄹ지언정」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는 「스+」로서 「것이」라는 뜻이다. 「-언정」은 |모음 다음에서 나타난다.

- (가) ·술은뎛 가지요 濁酒와 淸酒로다 먹고 醉할선정 淸濁이 關係하랴(67)
  - 一身이 閑暇할선정 살져 무삼하리오(73)
- (나) ·南八아 男兒 | 死已언정 不可以不義屈矣여라(8)
  - 성권 울 찬 비뒤에 출하리 얼디언정 (89)

### 16. -ㄹ지라도

- 불 아니 헐지라도 절노 익는 솟과(36)
- 열 늬이 빅 말을 헐지라도 님이 짐작하시쇼(38)

위의 語尾 「-ㄹ지라도」는 「비록 그러하더라도」의 뜻으로 未來의 일을 양보적으로 假定하는 어미로 15世紀國語에서는 쓰이지 않았던 것이다.

### 17. -ㄹ디(디)

- (가) ·空山이 寂莫홀디 숲히 우는 더 杜鵑아(5)
  - 西亭江山月이 두렷시 밝앗는디(25)
  - 朔風은 나무 곁헤 불고 明月은 눈 속에 찬디(32)

- (나) · 이바딜 머구리라 새움 먹숨을 낸대 널웨를 숨엿더시니(月千 108장)  
 · 供養 올항승보려 도흔 먹숨을 낸대 即時에 나사오시니(月千 108)

이 語尾는 그 말이 나타나는 뜻을 당연한 사실로서 또는 기대에 어긋나는 原因으로서, 뒤엿 말로 넘겨주는 기능을 한다. 위에서 (가)의 語尾는 「-는데, -는데」의 뜻으로, (나)의 語尾는 「-ㄴ즉, -니까」의 뜻을 나타낸다.

### 18. -ㄴ말이

- (가) · 正陽寺 眞歇臺 고터 올라 안존말이 廬山眞面目이 여괴야 다 되는다(關勳別曲)  
 · 流霞酒 2득 부어 돌 드려 무론말이 英雄은 어디 가며(關東別曲)  
 (나) · 危樓에 혼자 올라 水晶簾 거든말이 東山의 돌이 나고 北極의 별이 비니(思美人曲)

이 語尾는 松江作品中에서만 쓰인 특색 있는 것인데, 「-으니」의 뜻을 가지고 있어 각각 「앉으니」 「물으니」 「걸으니」의 말인데 (가)의 語尾는 어떤 事實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語尾는 因果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 19. -고자(고저)

意圖形으로 現代國語에서 「-고자(고저)」로 쓰이나, 古時調에서는 「-과져, -고져, -괘져」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 (가) · 月明長安에 님 계신 데 보너고져(96)  
 · 저 물이 거스리 호르과져 나도 우러 보너리라(14)  
 · 저근덧 비려다가 뿌리괘져 므리우회(48)  
 · 일이 도흔 世界 놈대되 다 비고져(關東別曲)  
 · 더 梅花 것거내여 님 겨신타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엿더타 너기실고(思美人曲)

現代國語에서 「-고자」 다음에 보통 동사 「하다」가 뒤따라 意圖가 강하게 나타나, 詩歌에서는 願望의 뜻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意圖를 강하게

나타낼 적에는 語尾 「-려」를 다음과 같이 사용했다.

- (나) · 우리도 聖主 되옵고 重修하려 호노라(8)  
 · 聖恩이 至重하시리 잡고 가려 호노라(11)

## 20. -다가

- 白馬金鞭으로 어의를 단니다가 酒色에 삼겨 잇서(116)  
 · 압 못세 든 고기들아 뒤라셔 너를 모라다가 녀켜늘 든다(40)

이 語尾는 보통 中斷形 또는 轉換法이라고 하는데 계속되던 상태나 동작이 다른 상태나 동작으로 연결되는 순간의 中斷을 보여주고 있다.

## 21. -도-샤

- 鶯翁도 초도출샤 이 밤은 언제 쟁고(思美人曲)  
 · 늦길 일도 하도할샤(思美人曲)  
 · 닛는 듯 퍼티는 듯 현스토현스홀샤(星山別曲)  
 · 山인가 구름인가 머흐도머홀시고(思美人曲)

위는 반복법을 써서 뜻을 강조하고, 리듬도 살려서 표현하는 詩歌體 문장에 적합하다. 古時調에서는 쓰이지 않았고 歌辭에서 쓰였다. 現語 「-도」는 助詞로서 體言에 붙듯이 上例에서도 「초도출샤」는 「차기도 차구나」의 뜻이다.

## 22. -근똥 -근똥(-명-명, -락-락)

- (가) · 時節이 하 殊常하니 쉴똥말똥 하여라(14)  
 · 來日은 江湖에 벗 모이니 쉴똥말똥 하여라(56)  
 · 春雪이 亂紛紛하니 쉴똥말똥 하여라(79)  
 (나) · 紅蓼花白蘋洲渚의 오명가명 호노라(松江, 短歌)  
 · 草堂에 淸風明月이 나명들명 기드리느니(雙岩集, 效嘯歌)  
 · 나명성들명성 일히도 구느지고(儂仰集, 면양정장가)

- (다) · 불 우회 兩兩白鷗는 오락가락 ㅎ더라(16)
- 淸風은 오락가락 明月은 들락날락(35)

위의 語尾들은 소위 反復形語尾인데, (가)의 「-근똥-근똥」은 일의 귀추가 불안정함을 나타낸다. 反復함에 있어 꼭 否定의 동사 「말다」를 썼다.

(나)의 語尾 「-멍-멍」은 現代國語 「-며-며」에 해당되는 것인데, 相對語彙를 내세워 反復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다)의 語尾 「-락-락」은 동작이나 상태가 번갈아 되풀이됨을 나타내는데 꼭 相對語彙를 내세웠다. 위에서 예를 든 것 외에도, 「자락씨락, 오락가락, 무르락나으락, 일낙비락, 눅흐락늑즈락, 모지락둥그락, 모드락흐트락, 여트락지트락……」

### 23. -며

- 靑藜杖 드던지며 石逕으로 도라드니(12)
- 滿山紅綠이 휘드르며 웃는고야(19)
- 草堂에 淸風明月은 나며들며 기다린다(50)

語尾 「-며」는 羅列形으로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쓰이는 것이다. 上例에서와 같이 反復으로도 쓰인다.

### 24. -근스록(지록)

- (가) · 路中에 多路ㅎ니 멀스록 길이로다(42)
- 山水에 癖이 이러 늘글스록 더욱ㅎ니(蘆溪樂, 노제가)
- (나) · 又지록 白髮이 지촉ㅎ니 不勝慷慨ㅎ여라(25)
- 九疑峯 구름이 가지록 석로리라(172)
- 어와 聖恩이야 가디록 罔極ㅎ다(關東別曲)

위의 語尾 「-근스록」과 「-지(디)록」은 소위 益甚形語尾로서 어떤 일이 더하여 감을 나타내며 語幹에만 直結된다. (나)의 語尾 「-지(디)록」은 「가다」동사에서만 쓰였다.

## 25. -도록

到及形語尾인 「-도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여주었다. 柳穆相 (1985 : 118)은 「-도록」을 연결어미로 보지 않고 副詞化語尾로 보았고, 尹坪鉉 (1981 : 34)은 補文化의 과정에서 補文을 이루는 補文素로 다루었다.

그러면, 詩歌에서 쓰인 「-도록」의 意味를 살펴보기로 한다.

- (가) · 감던 머리 회도록 老萊子の 옷슬 입어(15)  
· 西廂에 期約헌 님이 탈 듯도록 아니 온다(52)
- (나) · 人心이 늦 못야 보도록 새롭거늘(星山別曲)  
· 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高山遺稿 六下106)
- (다) · 白髮에 아귀 줄 모른도록 흥의 늙자 흥노라(蘆溪集 五倫歌)
- (라) · 前前에 뭇시던 거시면 이터도록 설우랴(177)  
· 童男童女를 그터도록 드러다가(蘆溪集 船上歌)
- (마) · 엇그제 비준 술이 어도록 니건느니(星山別曲)  
· 네 아들 孝經 뉘더니 어도록 빙찾느니(松江, 短歌)

위에서 (가)의 語尾 「-도록」은 到及形으로 「~하기까지」의 뜻이며, (나)의 그것은 益甚形으로 「-근수록」의 뜻으로 쓰여 現語와 다르다. (다)의 語尾 「-도록」은 「-게」의 뜻으로 副詞的 기능을 하였다. (라)와 (마)의 경우는 副詞로 造語되었는데, 각각 「이같이, 이와같이」 「그같이, 그와같이」, 「얼마나」의 뜻이다.

## 26. -자

- (가) · 꽃 지자 속님 나니 緣陰이 다 퍼졌다(46)  
· 술 익자 菊花 휘자 벗님 오자 달이 도다 온다(40)
- (나) · 출하리 물그의 가 빙길히나 보자하니(續美人曲)

위에서 (가)의 語尾 「-자」는 소위 連發形語尾로 한 동작이 일어남에 잇달아 다른 동작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나)의 語尾 「-자」는 意圖形으로 「-려」의 뜻이다.



### Ⅲ. 結 論

지금까지 朝鮮朝 문헌인 古時朝(歌曲源流), 樂章, 歌辭 등에서 쓰인 連結語尾를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現代國語의 경우 일부 語尾에 대한 個別研究가 深度있게 이루어져 語尾의 본질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문헌의 表記에 의존해야 하는 中·近世國語의 경우 深度있는 研究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깊은 研究가 있기를 기대하고, 本論에서 고찰한 바를 縮約整理해 본다.

① 「-거늘(-어늘, -나늘)」: 說明, 原因 등을 뜻하고 「-나늘」은 동사 「오다」의 어간에 붙는다.

② 「-니」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原因 또는 어떤 事實에 대한 說明의 기능을 하고, 「-거니」는 뒤따르는 글에 反問의 設疑法과 호응하고, 羅列形語尾로도 쓰인다. 그리고 「-니」는 「-는 것은」의 뜻으로도 쓰인다.

③ 「-거든」은 假定, 條件, 意圖, 說明 등을 나타낸다.

④ 「관디」는 原因을 캐어 물을 때에 쓰인다.

⑤ 「-르진디」는 「-르것 같으면」의 뜻의 假定法이다.

⑥ 「-르시」는 後行句節에 대한 原因의 기능을 한다.

⑦ 「-드면」은 「-있으면」, 「-량이면」은 「-르것 같으면」의 假定으로 쓰인다.

⑧ 「-어드란(-거드란)」은 現語 「-거들랑, -걸랑」의 뜻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상하여 진술할 때 쓰인다.

⑨ 「-ㄴ들」은 뒤의 글에 反問의 設疑法을 이끈다.

⑩ 「-나」는 ㉠相對語를 내세워 選擇을 나타내게 하고 ㉡語彙를 反復시켜 표현을 강하게 한다. 「-거나」도 選擇과 강세의 의미기능이 있다.

⑪ 「-ㄴ 말이」는 「-(으)니」와 같은 기능으로 ㉢어떤 事實을 말하거나, ㉣어떤 因果關係를 나타낸다.

⑫ 「-고자」는 願望·所願의 뜻이 강하고 意圖를 나타낼 때는 「-려」를 사용했다.

⑬ 「-ㄴ똥말똥, -락-락, -명-명」은 反復形語尾인데 「-락-락, -명-

명」은 相對語彙를 내세워 反復하게 하였다.

⑭ 「-도록」은 ㉠「-하기까지」 ㉡「-리수록 (益甚)」, ㉢副詞的 기능, ㉣副詞로 造語하여 쓰였다.

### 參 考 文 獻

- 金在玟(1983), 「-도록」의 통사적 제약 및 의미분석, 국어교육 46·47호.  
 金泰現(1984), 古時調에 쓰인 終結語尾 研究, 韓國言語文學 23호.  
 柳穆相(1985), 連結叙述語尾研究, 集文堂.  
 尹坪鉉(1981), 「-도록」의 의미와 문법, 韓國言語文學 20·21호.  
 李基白(1981), 國語語尾의 史的 研究, 경북대 語文論叢 15호.  
 이상태(1977), {-면}무리 이음월에 대하여, 배달말 2호, 배달말학회.  
 李崇寧(1981), 中世國語文法(改訂版), 乙酉文化社.  
 崔範勳(1981), 中世韓國語文法論, 二友出版社.  
 최현배(1955), 우리말본, 정음사.  
 허 응(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황병순(1983), 「마는」에 이끌리는 접속문에 대하여, 배달말 8호, 배달말학회.